# “법인 대종사여! 다시 돌아오소서”

## 각원사 조실 경해당 법인 대종사 영결·다비식

**3월 27일 각원사서 엄수**
**사부대중 1500여 명 운집**
**통일 원력·포교 행장 기려**

천안 각원사=유재상 충청지사장

남북통일의 염원을 청동대불 불사로 승화하고 인재 양성과 전법에 매진한 천안 각원사 조실 경해당 법인 대종사의 영결식이 3월 27일 각원사 대웅보전 앞마당에서 문도장으로 엄수됐다.

영결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를 비롯한 종단 주요 소임자 스님들과 불자, 정관계 인사 등 사부대중 1500여 명이 운집해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원로회의 수석부의장 보선 대종사가 대독한 영결 법어를 통해 “경해당 법인 스님은 다겁생래의 원력으로 이 땅을 불국토로 장엄하시고, 이제 본래 생멸 없음을 보이셨다”며 “각령전에 향적세계의 향반을 올리오니 무생락을 누리시라”고 추도했다.

자광 스님은 “‘불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바로 보는 데 있다’는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의 마음을 바로 보면서 서로 화합하고 정진할 것을 다짐한다”며 “다시 큰 광명으로 사바세계에 화현하시어 중생 제도의 길을 밝혀 주시옵소서”라고 서원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총무부장 성웅 스님이 대독한 추모사에서 “스님께서는 남북통일 염원을 청동대불 불사로 승화시키고 각원사 불교대학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며 현대 포교의 지평을 넓혔다”며 “태조산의 큰 별, 다시금 법의 수레바퀴를 굴려 돌아오시라”고 추모했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자비와 정직, 근면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한 수행자의 삶과 통일 서원은 사부대중의 가슴속에 남을 것”이라고 애도했다.


경해당 법인 대종사의 영결·다비식이 3월 27일 각원사 대웅보전 앞마당에서 문도장으로 엄수됐다.

장의위원장 청우 스님은 “스승을 모신 인연을 되새기며 각원사 도량과 불교대학, 신도 조직을 통해 대종사의 원력을 확인했다”며 “스님의 통일 원력이 이어져 수행과 포교 도량으로 더욱 빛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도대표 대원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참석한 사부대중에 감사를 표한 후 “정성을 다해 모시고자 했지만 부족함이 많아 송구하다”며 “대종사의 뜻을 받들어 수행과 포교 도량으로 더욱 굳건히 세워가겠다”고 말했다.

영결식을 마친 스님의 법구는 천안 사암연합회, 제6교구 동림회 스님들과 태국·베트남 사찰 스님들이 운구에 참여한 가운데 다비장으로 이운됐다.

연화대에 안치된 스님의 법구는 사부대중의 ‘나무아미타불’ 염송 속에 지수화풍 사대로 흩어졌다.

법인 스님의 49재는 3월 29일 초재부터 5월 10일 막재까지 천안 각원사에서 오전 10시 30분에 봉행된다.

# 주석 스님 詩, 프랑스서 예술로 꽃피다

**3월 26일 파리 한국문화원서**
**프랑스어판 시집 출간 기념행사**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불교의 수행 정신과 예술이 어우러진 특별한 문화 행사가 열렸다.

꼬레그라피협회(대표 남영호)는 3월 26일(현지 시각)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주석 스님(명경문화재단 이사장)의 시집 〈그대가 오늘의 중심입니다(Vous êtes le centre de ce jour)〉 프랑스어판 출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한국문화원과 재단법인 명경문화재단이 마련한 이번 행사는 한·불 수교 14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열렸다.

행사는 명상으로 문을 열었다. 관객들은 주석 스님의 안내에 따라 명상하며 호흡을 가다듬고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드로잉 퍼포먼스에서 스님은 일곱 가지 감정인 기쁨·분노·슬픔·즐거움·사랑·미움·욕망을 색채로 풀어내며, 모든 감정이 결국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드로잉은 ‘마음[心]’에서 출발해 ‘문(門)’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통해 감정이 마음의 문에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과정을 형상화했다. 주석 스님은 “모든 감정은 마음에서 시작해 다시 마음으로 돌아간다”며 ‘마음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남영호 총감독과 프랑스 무용수들이 함께한 무용 퍼포먼스에서는 주석 스님의 시 세계가 몸의 언어로 확장됐다. 시의 메시지를 움직임으로 재해석해 동서양 예술이 교차하는 새로운 무대가 펼쳐졌다.

시집 번역을 맡은 문영훈 시인과 프랑스 라신느(Racine) 출판사 알랑 브르통 대표가 참여한 시 낭송과 관객과의 대화도 진행됐다. 파리 7대학 한국어과 졸업생은 “영성과 예술을 결합한 점이 인상 깊었고, 바쁜 일상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 준 자리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여수령 기자

# 선운사 전주 포교당 법계사 불사 ‘첫 삽’

**3월 29일 송천동 현장서 기공식**
**1100평,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
**경우 스님 “전북 포교 거점될 것”**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는 3월 29일 전주 에코시티 내 종교용지 현장에서 ‘선운사 전주 포교당 법계사 기공식 및 안전기원제’를 봉행했다.

전주에 전북불교의 새로운 희망을 일굴 장엄한 불사의 서원이 울려 퍼졌다.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는 3월 29일 전주 에코시티 내 종교용지 현장에서 ‘선운사 전주 포교당 법계사 기공식 및 안전기원제’를 봉행했다.

기공식에 앞서 사부대중은 공사의 원만한 진행과 현장의 안전을 발원하는 안전기원제를 개최했다. 전북영산작법보존회 법진 스님, 법정 스님, 지헌 스님 등이 집전한 안전기원제는 전통 의식에 따라 여법하게 봉행돼 대작불사의 시작을 알렸다.

선운사 전주 포교당 법계사는 전액 선운사 자체 부담으로 건립된다. 부지 매입비 25억원, 설계비 4억6000만원, 건축 공사비 87억원 등 총 11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대작불사다.

법계사는 대지면적 1698.90㎡(약 514평)에 연면적 3671.83㎡(약 1111평),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다. 설계 단계부터 ‘지역 주민의 힐링 공간’과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핵심 가치로 삼았다.

공간 배치는 불교 교리인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현대적으로 해석했다. 1층은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카페와 키즈존 등 주민 참여형 공간으로 꾸려진다. 2층은 불교문화 체험 및 교육 공간, 3층은 대웅전과 명상실 등 수행 공간, 4층은 스님들의 주거 및 사무 공간으로 조성된다.

외관은 도심 속에서도 산사의 정취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선운사 만세루와 극락교, 6층 석탑의 디자인 요소를 차용했으며 2027년 완공될 예정이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기공식은 단순한 건축의 시작을 넘어 수행과 전법의 새로운 길을 여는 첫걸음” 이라며 “더 이상 산중에만 머무는 불교가 아니라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호흡하는 살아있는 가르침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곳은 지역 주민 누구나 마음을 쉬고 지혜를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의 장이 될 것”이라며 “사부대중의 원력과 정성이 모여야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는 만큼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안전하게 회향하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찬원 선운사 신도회장은 고불문을 통해 사부대중의 간절한 서원을 부처님 전에 고했다. 정 회장은 “이 도량이 정법이 살아 숨 쉬는 수행과 포교의 전당이 되기를 발원한다”고 서원했다.

행사의 열기를 더하는 문화 공연과 보시 행화도 이어졌다. 특히 임종혁 전 선운사신도회장은 전주포교당 법계사 건립 기금으로 1300만원을 전달해 불사의 원만 추진을 바라는 신도들의 정성을 대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신뇨엔, 개조 탄신 120주년 대재 봉행

**3월 29일 서울정사에서**
**이토 원주 “자비행 실천”**



재가불교 교단 신뇨엔(眞如苑)이 이토 신죠(伊藤真乘) 개조(開祖) 탄신 120주년을 맞아 3월 28일 서울 신뇨엔 서울정사에서 기념대재를 봉행했다. 대재는 일본 현지의 1만여 대중이 모인 총본부 등과 온라인으로 연결해 진행됐다. 서울정사에는 300여 대중이 운집했다.

이날 대재는 불교의식과 함께 생전 개조의 가르침 영상 상영과 헌화와 헌공, 이토 신소 원주의 인사말, 기념비 제막 등으로 진행됐다.

이토 신소 원주는 인사말을 통해 개조 탄신 120주년이 갖는 종교적 의미와 불자들이 나아가야 할 실천행을 강조했다. 이토 신소 원주는 “2026년은 만물을 빚어내는 에너지와 활기찬 번영을 상징하는 동아시아 십이지신의 ‘불의 말띠(병오년)’ 해로, 개조이신 신죠 스승님께서 바로 불의 말띠 해에 태어나셨기에 올해 탄신 120주년이 더욱 뜻깊다”며 “올해 개조의 삶을 기리며 △사랑과 보살핌으로 타인의 행복을 위해 행동할 것 △우리의 신앙을 영적인 안식처에 굳건히 세울 것 등 두 가지 정진을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전 지구적 위기 속에서 불자들이 지녀야 할 대승불교의 보살도에 대한 법문도 이어졌다. 공동 개조인 이토 토모지(伊藤友司) 스승이 십일면관세음보살의 가르침을 감득한 일화가 소개됐다.

행사 후 서울정사에서는 이토 신죠 개조의 가르침을 담은 〈마음에 부처를 새기다, 신죠〉 한국어판 출간 안내도 이뤄졌다.

노덕현 기자